

대학출판의 현주소

체질개선 필요한 대학출판

그동안 대학출판국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교양교재들 주로 기능도서' 위주의 출판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으나 학문의 세분화, 다학제에 따른 획일적인 교양교재의 필요성 감소로 체질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출판국에 대학 인식이 교대나 논문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왔고, 교양교재 및 전공교재를 만들어 이미 확보된 고정독자층인 학생들에게 교재를 팔아 운영해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기능도서' 출판의 성격으로 알게 모르게 보호받고 있던 대학출판국이 출판의 전문화

현실적으로는 재정난부터 시작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본고출판국을 비롯해 각 대학출판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몇몇 대학들은 적극적인 활동의 모색과 변화로 새롭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타대학 출판국 현황

비교적 개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혁신적 지원을 통해 출판국이 활성화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를 비롯 동국대, 단국대, 이화여대들을 꼽을 수 있다. 학술출판의 요람으로 일찍이 활성화된 서울대출판국은 우수한 필자와 고정독자를 확보하고 있

영역별연구' 등 여성학에 관계된 서적을 몇년 사이 14만여권 찍는 등 일반에게도 인기있는 저술을 많이 발간하고 있다.

특히 올해 56편까지 펴낸 이화 문고의 기획시리즈는 독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년에 걸친 작업 끝에 한국불교사상의 흐름을 집대성한 '한국 불교전서'를 펴낸 동국대 출판부는 우리나라 전통의 철학과 사상 체계등 인접학문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부족, 재정적 부족등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개성있는 기획출판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출판부다.

이외에도 고려출판국은 역사학 관련 서적으로 외국어대는 어학 관련서적으로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이다. 이상과 같이 비교적 활성화된 대학출판국은 대학이 갖춘 최대

간하고 기획출판이 활발한 타대학과 비교해볼때 일년에 약5종정도 출간하는 본고출판국은 그 양과 질에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 출판국도 교양교재의 판매가 교내문제와 불가피하고 미묘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약으로 인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체질개선의 필요성은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침체되어있던 본고 출판국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대학구성원들의 인식부족이다.

대학출판국은 교재출판이나 논문집 정도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연구결과 보급, 지식의 유지와 증진을 꾀하는 대학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인식의 확대와 그에

버스에서 반나절을 보내는 학생들

수원캠퍼스 교통상황을 점검한다(上)

하나의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 즉 제반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79년에서 81년 사이에 수원 캠퍼스를 포함하여 13개 대학이 정부의 인구조산정책에 의해 경인지역으로 이전하여 8만여명의 현재 학생들이 지방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인구조산정책은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하는 것이 아닌 기형적인 대학을 만들어 버렸다. 또한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캠퍼스를 비롯한 경인지역 대학들은 자체내의 발전과 교육환경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인구조산정책으로 8만여명의 학생들이 지방으로 다니게 됨에 따라 각 대학들은 교통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수원캠퍼스 경우 8만여명의 학생 중 60% 이상이 서울에 주거함으로 인해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해 스쿨버스 31대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수원캠퍼스는 강남-학교노선과 수원-학교노선을 스쿨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신갈까지 운행되던 대중버스를 학교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다. 또한 수원-학교간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배차시간을 줄이는 한편 학생들이 봄비는 시간대에 각 노선별로 스쿨버스를 증정배차하고 있다.

그러나 경인지역에서 가장 많은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서울-수원간 고속도로의 체증이 가장 큰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것은 개설당시에는 37분이면 학교에 도착했었으나 요즘에는 20분에서 30분정도 더 소요된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또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할때에는 서울북부에서 차량정체를 막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시간정도가 아닌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걸려 학생들의 하루 강의를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 김봉균(사학·1)군은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강남역에 나오면 학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어 학교수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 간적이 여러 번 있다. 또한 학교에 가도 50여분 정도 서서 가야되니 아침부터 너무 힘이 든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대학 교통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교통문제는 대학의 모든 복지문제, 캠퍼스타운 조성문제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그 결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난다.

우선 수원캠퍼스의 방화중 공동화현상이나 파생된 결과이다. 이번 학기에 학생회관이 완공되었고 내년에는 대학 최대규모인 도서관이 완공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캠퍼스타운 부제로 인한 제한 복지시설의 부족 또한 한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어교육관 앞 학생식당이나 거의 각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식당들은 캠퍼스타운의 부제로 인한 학생들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이다.

학교주변의 담구지나 식당들

학교	차량대수	운행구간
경희대학교(수원)	교직원·6대 학생·31대	학교↔수원·강남·신갈
강남대학교(신갈)	교직원·2대 학생·19대	학교↔수원·용산·교대·잠실
명지대학교(용인)	교직원·5대 학생·28대	학교↔동대문·영등포·강남·잠실·인천·용산·용인
외국어대학교(용인)	교직원·6대 학생·8대	학교↔사당·잠실·동서울역
경기대학교(수원)	교직원·5대 학생·12대	학교↔서울고속노선·인천·평택·수원
아주대학교(수원)	교직원·2대 학생·17대	학교↔동대문·강남·뉴코아·수원
수원대학교(화성)	교직원·3대 학생·15대	학교↔수원·강남

경기도의 대학의 교통현황

신갈까지의 전철유치만이 유일한 해결책

도로의 교통체증이 복잡적으로 얽혀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단순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버스의 증가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통체증이란 문제가 있을 때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대해 이승주(기계·3)군은 "올 초부터 학생들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하기 위해 수원-학교간 시내버스의 운송, 남부터미널에서 학교까지 연장운행하는 것 등 여러가지 방편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서울-수원간 고속도로의 체증으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어떤 확실한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내의 한편에서는 위와 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철을 신갈까지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다.

일산, 분당 신도시건설을 계기로 인하여 제기된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재 서울-신갈간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고려해볼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대안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현재 계획중인 분당선 전철의 연장을 계기로 하여 일산, 분당, 신갈, 수원 전철 순환선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만일 이렇게 되었을 경우 왕실리에서 학교까지는 단 4분이 소요되며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수원캠퍼스 뿐만이 아닌 경기도 동부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거, 학술, 산업도시의 건설을 장기적인 전방으로 가지며 수원캠퍼스의 경우는 주변의 산업분포로 보아 이상적인 캠퍼스타운의 건설에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수원캠퍼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이러한 역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 전철의 유치와 가장 기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오세훈 기자)

“설 자리 잃은 대학출판”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양교재시장이자 일반출판사에게 잠식당하게 되자 이제 설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팔리지 않는 교양교재만으로는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교재발간이라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출판정책의 전환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본고 출판국의 취약한 구조

기본적인 교양교재, 각종 논문집 등 필수기본도서를 출판하고 있는 본고출판국도 예외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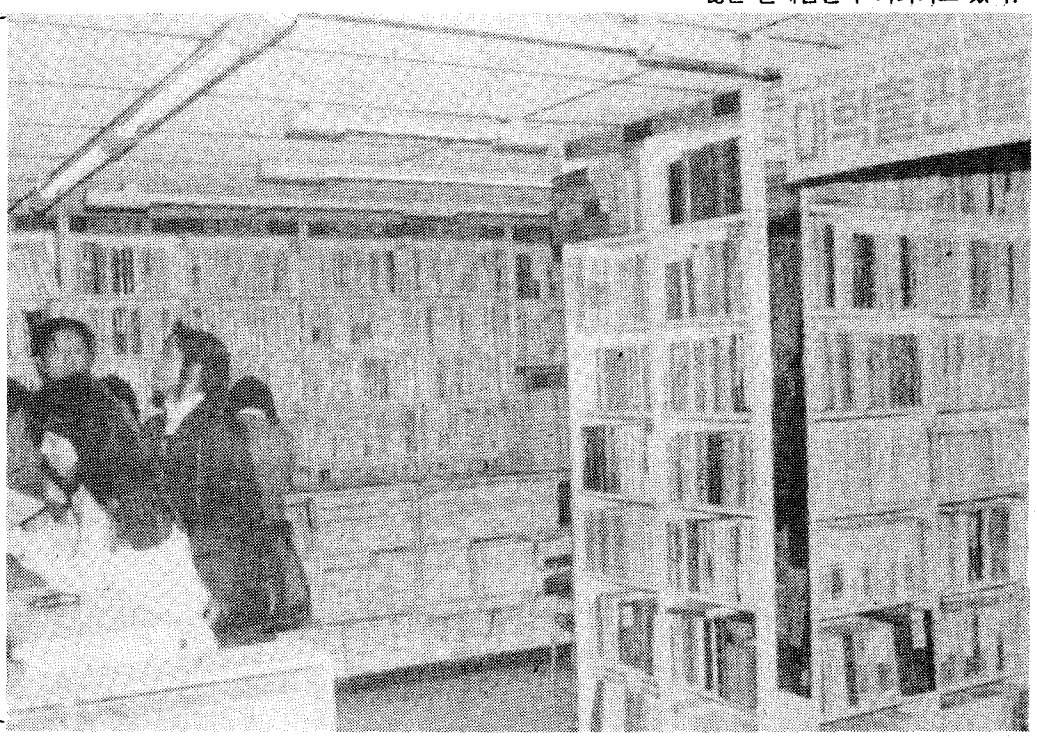
3년전까지만해도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있던 교양필수교재판매가 자율구매로 바뀌자 판매량이 급속히 저하, 독점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재정의 대부분을 교양교재판매에 의존해왔던 출판국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나마 몇 권이 팔리는데는 전공서적도 판매가 부진해 마땅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간 약5종정도에 이르는 빈약한 출간 현황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숙련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출판요원의 부족, 대학출판에 대한 학교당국과 학생들의 인식부족, 재원부족등 출판국의 구조적 취약성은 어찌, 오늘날의 이아기는 아니다.

하지만 만들기만하면 일정한 부수가 팔리는 교양교재판매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뿐이다. 각 대학의 상황도 비슷하지만 본고의 경우도 교재출판에만 안이하게 머물러 있었기때문에 교재판매가 어려움에 부딪히자

◇위기를 맞은 대학출판은 이제 교재출판의 안이함을 벗어 버리고 수준높은 학술연구도서, 기획도서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새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교양교재의 필요성 퇴색... 운영난 불러 출판영역·독자층 확대등 체질 개선 필요

으며, 자체인쇄시설까지 갖추고 대형출판업체로 연간 인문·사회·자연 등 22개분야 60여종정도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하내뿐만 아니라 일반독자를 겨냥한 '대학교양서', '대학교전총서' 등의 시리즈를 발행해왔으며, 지난 80년 초판발행이후 4만부를 넘긴 '한국고미술의 이해'와 같은 학술교양물의 발간으로 넓은 판매망을 구축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경우로 꼽힌다.

또한 국내 대학 출판부중 비교적 긴 역사를 지닌 이대출판부는 '여성학', '법여성학', '여성학

의 조건을 살펴 학술연구서적에 노력해온 결과로 교재출판의 구태의연함을 과감하게 벗어 버린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반출판사와 달리 수준높은 순수학술서적출판으로 일반독자들에게까지 꾸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은 그동안 교재출판에만 몰두해오던 본고출판국의 현실에 비추볼때 특기해야 할 현상이다.

적극적 활로 모색 필요한 본고 출판국

이상과같이 일년에 50여종 발

탄 노력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는 교재출판에 대한 시각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학의 교육용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전문학술서적으로써 가치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장을 포함해 직원이 고작 3명인 본고출판국은 아르디지 이너와 전문출판인들을 과감히 영입한 활발한 타대학 출판국과 비교해볼때 열악한 상황으로 대학출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시급하다.

넷째는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대학출판국이 갖을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이 바로 우수 필자의 확보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교수들의 참여가 부실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수준높은 교양서 발간으로 독자층의 확대, 기획출판의 활성화, 영입능력의 보장, 편집의 전문화등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출판국 직원인 이종희씨는 "현재 출판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에 교재출판의 후퇴는 전반적인 운영의 침체를 가져왔을 나다. 당장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본고 출판국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며 체질개선을 위한 그 어떤 계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준희 기자)

1990학년도 동계 어학 연수(중국어)에 관한 안내

1990학년도 동계 방학 기간중 학생 해외 어학 연수(중국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연수조건

- 1) 연수과목: 중국어
- 2) 연수장소: 중국(북경 외국어 대학)
- 3) 연수기간: 1990년 12월 15일 - 1991년 1월 18일 (35일간)
- 4) 연수지역: 북경, 연대, 북경
- 5) 수업시간: 매주당 20시간(수소: 기숙사)

나. 연수경비: 960,000(30명 기준 요금)

인천-위해-인천차페리, 수업료 및 교재비, 기숙사비, 관광비, 보험료, 비자 및 제반 수수료 포함(여권 인지도 비용은 각자 부담)

다. 지원방법

- 1) 관심있는 학생은 11월 24일까지 국제교류사무국에 지원
- 2) 지원서 계약금 10만원을 아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 사본을 지원서(국제교류사무국)와 함께 국제교류사무국에 접수

* 은행과: 국민은행 006-01-1657-684 (주) 삼일항공 (송금시 필히 입금인 라에 경희대학교 및 이름 명시)

국제교류위원장

1990년 동계 문화연수(중국)

◇ 취지 ◇

일찌기 대학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본고 국제교류위원회는 최근 급격한 내외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문물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동계 중국 문화연수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 나라의 대학, 산업체, 유적지 방문을 포함한 현장교육을 통해 역사, 문화, 경제, 사회 및 세계정세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폭넓은 이해를 돕는데 있습니다.

1. 대상지역: 중국(위해, 연대, 북경, 천진, 제남, 대안, 쿤밍 등)
2. 여행기간: 10박11일
3. 연수일정: 제1전 12월 15일-12월 25일 제2전 1월 5일-1월 15일 제3전 1월 12일-1월 22일

* 만일 적정인원이 안될경우 일정을 변경한다(예: 제1전이 제2전과 함께 출발)

4. 경비: 70만원

서울(인천)-위해 카페리, 관광비, 숙식비, 교통, 보험료 및 비자 및 제반 수수료 포함(여권 비용은 각자 부담)

5. 숙박: Hotel

* 지원방법

1. 관심있는 학생은 11월 24일까지 국제교류사무국에 지원
2. 지원서 계약금 10만원을 아래 은행과에 입금하고 영수증사본을 지원서(국제교류사무국)와 함께 국제교류사무국에 접수

은행과: 신한은행 150-13-04927-5 삼일항공 신한은행 155-01-89009752삼일항공 (*송금시 필히 입금인 라에 경희대학교 및 이름 명시)

국제교류위원장

한반도 준비통제 워크샵 안내

한반도 준비통제에 관한 문제는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서화해 분위기와 새로운 국제정세의 모색 단계에서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정세 전반에 걸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지난 1년간 이 분야에 대한 소자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준비통제에 관한 특별 연구과제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1990년도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에 참여한 10여명의 연구자 집현과 함께 이 관련분야의 전문가 20여명을 모시고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토론회 기회를 갖고자 아래와 같이 한반도 준비통제 워크샵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반도 준비통제 문제에 관한 귀중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1990년 11월 24일(토) 10:00-18:00
2. 장소: 예술의 전당 세관 4층 회의실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전화 580-1514)
3. 발표 제목 및 참가자

- I. 분과 (10:00-12:30) 사회: 윤정석 교수(중앙대학교)

1. 준비통제의 국가안보
2. 준비통제의 정치경제
3. 준비통제의 신뢰구축
4. 재래식 준비통제의 역사(사태중심)

- II. 분과 (13:30-15:30) 사회: 권순태 교수(국방대학교)

1. 미소간의 핵무기 준비통제
2. 중소간의 한반도 준비통제
3. 미일관계의 한반도 준비통제
4. 신형준비통제(사태중심)

- III. 분과 (15:30-18:00) 사회: 홍성태 장군

1. 남북한 준비통제 제언의 비교
2. 주한미군과 한반도 준비통제
3. 미일관계의 한반도 준비통제
4. 남북한 준비통제의 협상전략

* 기타 워크샵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본 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961-0201, 966-1804)

경희대학교 국제평화 연구소

특수자료공개

본 중앙도서관에서는 급변 관계 기관의 특수자료(공산전관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조치에 따라, 그동안 취급금지되어 국한하여 활용되던 자료를 일반 학생들에게도 아래와 같이 널리 공개합니다.

1. 공개대상: 교수, 제학장(학부 및 대학원), 직원
2. 공개범위: 특수자료전반 (특별관계자료 포함) (단 본도서관의 미소장 자료를 요청할시는 통일 원동과 협의 및 보관하여 공개할 예정임)
3. 공개일시: 1990. 11. 7부터 매 주 수, 목요일(주2회) (단 도서관 사정 여하에 따라 평일에도 공개할 예정임)
4. 열람장소: 10:00-16:00(점심시간 제외)
5. 자료내역:

구분	보유수량	비 고
일간지	7종 746종	
주간지	4종 282건	
월간지	33종 1,920건	
기 타	43종 1,112건	격월, 계간 등
소 계	87종 4,060건	
단행본	188건	
총 계	4,248건	

7. 열람 준수사항

- 가. 대출 및 복사는 일체금함(취급인가자 제외)
- 나. 필기구에 소지품 지참을 금함
- 다. 출입시 반드시 학생증이나 도서관증 제시
- 라. 자료열람시 반드시 열람대상에 기재
- 마. 열람한 자료는 열람과서에 그대로 놓아둘것

중앙도서관



921 S. Western Avenu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733-2168, 937-8376(WESTERN)

웨스턴 호텔은 본고 동문(최철 전 LA동문 회장)이 운영하는 아담한 호텔로서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큰 쇼핑센터와 비즈니스센터, 한국계 은행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철회장은 그동안 본고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웨스턴 호텔을 이용하는 경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교회안내>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여러분과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적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이나 지방에 교회를 둔 분들을 본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으시고 교회봉사(성가대·교회학교 교사·예적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위치>

경희의료원 6층 본관과 별관사이

<예배시간>

주일아침: 1부 9시, 2부 11시

주일저녁: 매 주 일 오후 7시

삼일저녁: 수요일 7시

대학 청년부: 매 토요일 오후 5시

성지에서 온 교회